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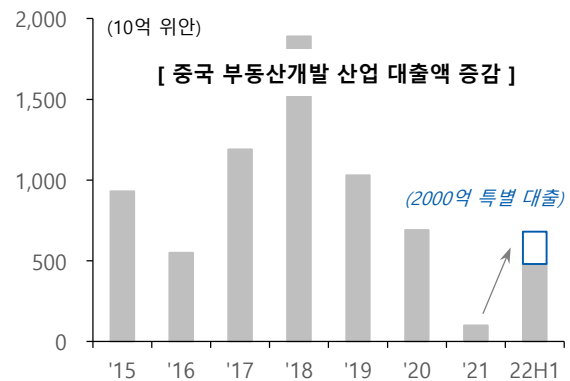


통제 가능한 변수에 초점이 맞춰질 중국의 정책

1. 유동성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부동산개발 산업

- 최근 양안 관계로 인한 미-중 분쟁 재개 가능성이 대두. 중국의 대비는 통제 가능한 변수인 '내수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판단.
- 중국 경제 중 건설과 부동산 부문의 비중은 14.8%, 가처분소득 중 부동산/임대 수익 비중은 11.2%.
- 22일 인민은행은 LPR 금리를 추가 인하, 부동산개발 기업들에 대한 2000억 위안 특별 대출도 검토 중. 작년 부동산개발 기업의 연간 대출 증감액은 1000억 위안.

모기지 대출 기준인 5년 LPR은 올해만 3번째 인하 단행.
2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대출도 검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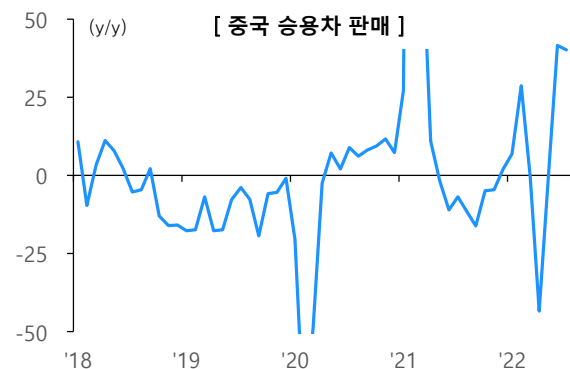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는 소비 보조 수단

- 중국 정부는 최근뱅크런과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 등으로 드러난 민심 관리 측면에서도 내수 경제를 부양할 필요.
- 관련해서는 호응이 좋았던 신에너지차의 취득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상해시는 10억 위안 규모 소비 쿠폰을 발행할 계획.
- 자체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투자는 여전히 양호. 7월 인프라투자는 전월 9.2%에서 9.6%로 개선.

호응 좋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간은 연장 결정.
구조적으로 양호한 소비심리를 자극할 전망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유동성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부동산개발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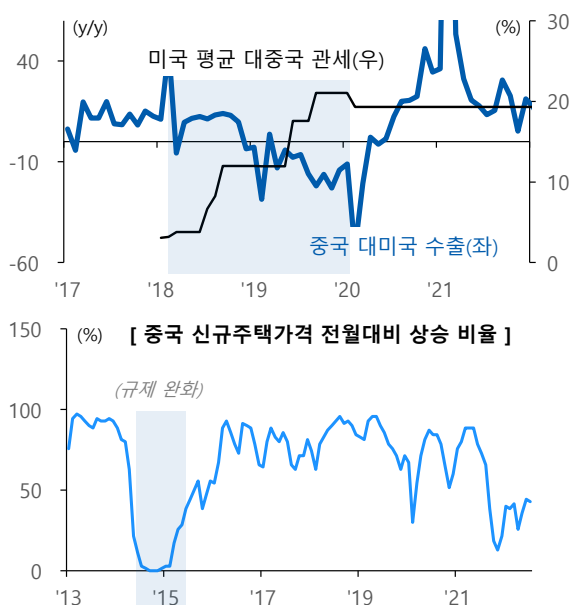
중국에서는 최근 양안 관계로 인한 미국과의 분쟁 가능성이 큰 불확실성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완화 기조를 보였던 대 중국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8년 무역분쟁과 최근 러시아의 사례를 본 중국도 대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방향은 통제 가능한 변수인 '내수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부동산이 필수적인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에서 건설 부문은 7.0%, 부동산은 6.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더하면 약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시민의 가처분소득 중 부동산/임대 수익 비중 역시 약 11.2%로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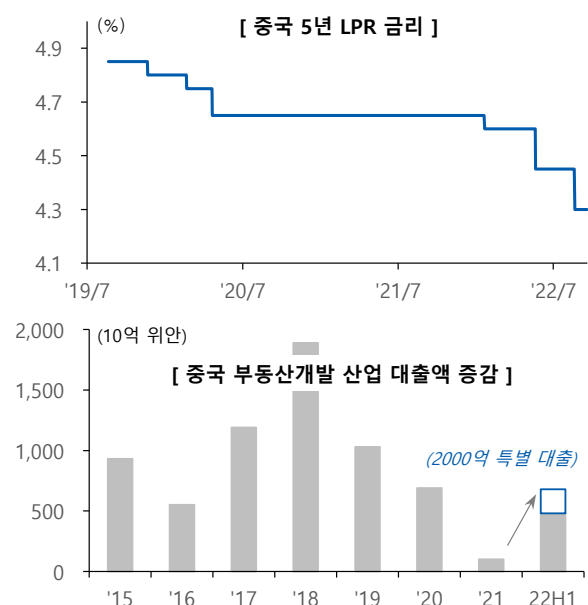
22일 인민은행은 모기지 대출 기준인 5년 LPR 금리를 -15bp 인하했고, 부동산개발 기업들에 대한 2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대출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본격 둔화했던 21년 중국 부동산개발 기업들의 연간 대출 증감액은 1000억 위안에 불과했다. (올해 2분기 YTD는 4800억 위안으로 회복 중)

[차트1] 중국은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내수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부동산은 필수적인 관리대상.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모기지 대출 기준인 5년 LPR은 올해만 3번째 인하 단행. 2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대출도 검토 중.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는 소비 보조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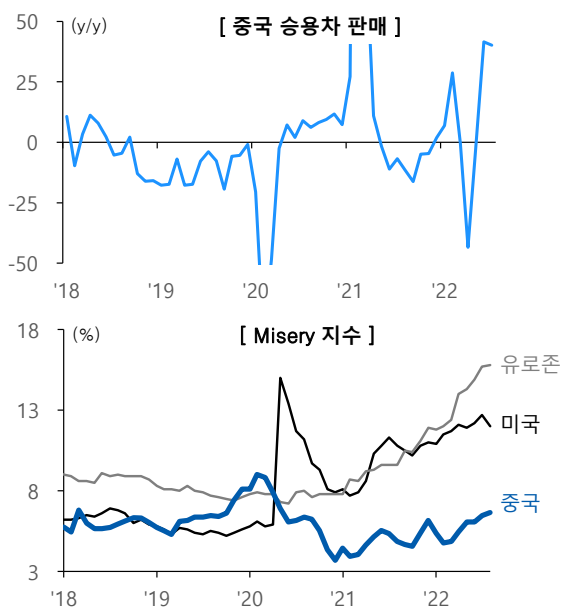
미국과의 본격 분쟁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행사를 앞둔 중국은 최근 '뱅크런과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 등으로 드러난 민심 관리 측면에서도 내수 부양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는 호응이 좋았던 신에너지차의 취득세 면제 기간을 23년말로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상해시의 경우 10억 위안 규모의 소비 쿠폰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분출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양호한 중국의 소비심리 자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투자는 여전히 양호한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7월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전월보다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회복이 예상되는) 부동산의 영향이 컸고, 인프라투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과가 개선(6월 YTD 9.2%→7월 9.6%)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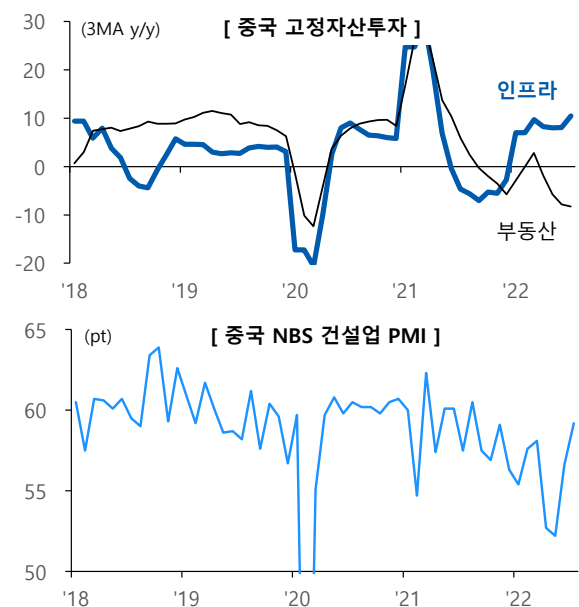
중국의 건설 PMI는 5월 52.2pt에서 7월 59.2pt로 급등했다. 최근 대만 이슈로 인해 지수 측면의 접근이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나, 전술 측면에서는 투자 선택지가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트3] 호응 좋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간은 연장 결정. 구조적으로 양호한 소비심리를 자극할 전망.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핵심 성장동력인 인프라투자는 여전히 양호한 성과. 건설 PMI 도 빠르게 반등 중.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